

[문제 1] 소설 (가), (나)와 글 (다)를 읽고 다음 조건을 반영하여 한 편의 글을 작성하시오.(1,000자, 50점)

- ① (가)의 ‘흡혈귀’와 (나)의 ‘괴물’을 비교하고, ㉠과 관련하여 두 존재의 특성을 제시할 것.
- ② ㉡의 원인과 결과를 ㉢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 ③ ㉢을 중심으로 좀비 장르로서 (가)의 사회적 의미를 논할 것.

(가) ‘불쌍한 흡혈귀들, 더러운 저주의 화신들. 그들이 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갈증과 절망에 몸부림을 치며 말이다.’ (...중략...) 갑작스러운 흥분에 그의 머리가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흡혈귀를 죽였는데 그것도 엄청난 위력이었다. 심장에 썩기를 박지도 않았고, 마늘을 먹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건 너무도 단순한 해답이었는데 바로 햇빛이었다. 이런 바보 멍청이 같으니. 무려 다섯 달 동안 놈들이 낮이면 숨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 (...중략...) 태양 광선이 공격하는 것은 놈들의 피가 분명해!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 마늘, 십자가, 거울, 썩기, 햇빛, 그들이 잠드는 땅 등 모든 것이? (...중략...)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친 다음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머지 통로를 빠져나왔다. 대개의 경우 그는 이들이 그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에 내곤 죄책감을 느꼈다. 묘한 동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빨리 실험을 해 보고 싶은 생각에 죄책감 따위는 지금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보도 위에 내던져진 그녀가 목이 조이는 비명을 토해 낼 때는 어쩔 수 없이 몸서리를 쳐야 했다. 그녀는 보도 위에서 무기력하게 몸을 뒤틀었다. 주먹이 오그라들고 붉은 입술이 입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하지만 로버트 네빌은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곧 끝날 거야. 그는 냉혹한 야만인의 자세를 취했지만 그 참혹한 광경에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고 말았다. 그래, 괴로워하고 있군. 그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저 여자도 그들 중 하나이고, 기회가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 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놈들을 대하라고. 아니면 네가 죽으니까. 그는 입술을 양다물고 그녀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중략...)

그곳에 서서 벤 코트만을 지켜보는 기분은 묘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옛날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자동차와 야구, 그리고 정치에 대해 논쟁도 했고, 그 후에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나눴으며, 버지니아와 케이시의 안부를 묻곤 했다. 네빌은 프레다 코트만의 건강을 염려해 주었다.

네빌은 고개를 저었다. 다 부질없는 과거사일 뿐이다. 코트만과 함께 죽어 버린 빌어먹을 과거.

그는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전 세계가 광기에 휩싸였지. 죽은 자가 돌아다녔고, 그래, 난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시체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더 이상 화젯거리도 되지 못했다. 기적도 여러 번 일어나면 농담거리로 전락하는 법인가? 네빌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위스키를 홀짝거렸다. 언젠가 벤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누구였더라? 하지만 기억해 낼 수가 없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려면 어때?

창틀 위에 잔을 내려놓은 네빌은 부엌으로 가서 수도물을 틀었다. 물을 틀어 놓은 채 다시 돌아가 보니 잔디밭 위에 다른 남자와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화를 하는 법이 없었다. 늑대들처럼 둥근 원을 그리며 초조한 듯 어슬렁거리었지만 서로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오직 집과 집 안에 있는 먹이를 향해서만 굶주린 눈빛을 쏘아 보내면 그만인 것이다.

**중략 줄거리:** 인류 최후의 생존자였던 네빌은 결국 살아 있는 시체로 불리는 흡혈귀들에게 잡혀 철창에 갇힌 채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다.

그는 쓰러질 듯이 창문으로 갔고, 창문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는 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새벽의 잿빛 대기 속에서 서로 밀고 밀리면서 있었다.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마치 수백만 마리의 벌레 소리 같았다.

네빌은 그들을 내다보며 핏기 없는 왼손으로 철장을 움켜쥐었다. 빨갭게 충혈된 그의 눈이 마치 핏물이 고인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보았다. 한동안 어수선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비명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 누군가 두꺼운 담요로 그들의 머리를 덮어 버린 듯 사위가 고요했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그들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문득 자신이야말로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이란 다수의 개념이자 다수를 위한 개념이다. 단 하나의 존재를 위한 개념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깨달음은 그들의 표정에 나타난 감정과 오버랩되었다. 경외, 두려움, 형언할 수 없는 공포. 그렇다. 그들

은 네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벌이었다. 자신들이 끼고 살아가야 하는 질병보다도 더 흉측한 존재였던 것이다. 스스로의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 아닌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유령이었다. 그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씻었다.

-리처드 매드슨(Richard Matheson), 「나는 전설이다」(1954)

(나) 나에게 교회 앞마당이란 생명을 박탈당하고 한때 아름다움과 힘이 거하던 옥좌에서 벌레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린 육신들의 저장소에 불과했다. 부패의 원인과 경과를 살펴보려면 하는 수 없이 며칠 밤낮을 지하 납골당이나 시체안치소에서 보내야 했다. 어린 인간의 감정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참혹한 관찰 대상 하나하나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했다. 인간의 훌륭한 육신이 어떻게 훼손되고 소모되는지 보았다. (...중략...)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던 나는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걸보기에는 죽음으로 부패된 육신에도 새 생명을 줄 수 있겠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중략...) 나는 시체안치소에서 유골을 수집했고, 속된 손으로 인간 신체의 유장한 비밀을 어지럽혔다. (...중략...)

이 대재앙 앞에서 느낀 감정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혹은 무한한 수고와 정성을 들여 빚어낸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괴물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사지는 비율을 맞추어 제작되었고, 생김생김 역시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했다. 아름다움이라니! 하느님, 맏소사! 그 누런 살갗은 그 아래 비치는 근육과 혈관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흑발은 출렁거렸고 이빨은 진주처럼 희었지만, 이런 화려한 외모는 허여멀건 눈구멍과 별로 색깔 차이가 없는 희번덕거리는 두 눈, 쭈글쭈글한 얼굴 살갗 그리고 일자로 다문 시커먼 입술과 대조되어 오히려 더 끔찍해 보일 뿐이었다.

살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우연들도 사람의 감정만큼 변덕스럽지는 않다. 나는 ㉠ 생명 없는 육신에 숨을 불어넣겠다는 열망으로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온전히 바쳤다. 이 목적을 위해 휴식도 건강도 다 포기했다.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열정으로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 하지만 다 끝나고 난 지금, 아름다웠던 꿈은 사라지고 숨 막히는 공포와 혐오만이 내 심장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다. (...중략...) 아! 산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무시무시한 얼굴을 견딜 수 없었으리라. 미라가 다시 살아나 움직인다 해도 그 괴물처럼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미완의 상태에서 괴물을 찬찬히 뜯어본 적은 있다. 그때도 흉물이었다. 하지만 그 근육과 관절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자 단테도 상상 못했을 괴물이 되어 버렸다.

-메리 셸리(Mary Shelly), 「프랑켄슈타인」(1818)

(다) 혐오의 감정은 더러운 것,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이 제거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남는다. 나아가 배설물, 점액질 등에 혐오를 느끼지 않는 어린아이를 떠올린다면, 혐오는 본능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혐오가 우리 자신이 지닌 동물성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혐오의 대상은 ㉡ 인간의 유한성과 동물성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혐오는 우리가 지닌 동물성을 숨기고,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이다. 궁극적으로 ㉢ 모든 혐오의 기반은 '우리 자신'이며, 혐오는 우리가 될 수 없는 어떤 존재, 즉 동물성을 갖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려는 불가능한 소망을 기반으로 한다.

동물성을 숨길 수 없는 인간은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불안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유한성을 초월한 존재인 신을 예찬하는 동시에, 동물성과 유한성의 징후에 대한 혐오를 키우고 가르친다. 이런 측면에서 혐오는 역사적으로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우리는 스스로와 구별될 수 있는 집단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진정한 인간과 저열한 동물 사이의 경계선을 예시하게 된다. 그러한 유사 동물이 우리와 우리의 동물성 사이에 존재한다면, 인간은 동물성과 유한성에서 한층 더 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 혐오의 감정은 지배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을 예측시키고 낙인찍은 사회적 행위 양식과 연결된다.

현대 대중문화의 대표적 공포물인 좀비 장르는 혐오와 관련된 우리의 양가적인 감정을 잘 보여 준다. 좀비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죄책감 없는 혐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저열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들은 언젠가 감염되어 동물로 전락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취약함, 동물성을 전경화한다는 점에서 혐오의 감정이 기반하는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기도 한다.

## 연습지

※ 답안은 반드시 별도 부여된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본 연습지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시험 종료 후 회수됩니다.

K ARTS

**[문제 2] (가)~(다)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작품을 평가한 후, ㉠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1,000자, 50점)**

(가) 18세기 이마누엘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천재의 근본 면모 두 가지를 이야기하였다. 그 첫 번째는 규칙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천재란 어떤 특정한 규칙도 주어지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재능이다. 즉 그것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숙련의 소질이 아니다.” 예술 작품은 인간의 생산품이지만, 여느 기성품과 달리 획일적인 규칙에 따라 생산되지 않는다. 즉 천재는 이전에 없던 규칙을 창조하는 사람이지만 이전에 있던 규칙을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아무리 독자적인 생산물이라도 무의미한 것을 천재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생산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본받을 만한 대상 즉, ‘모범(model)’이 되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 천재의 작품은 다른 작품들이 좋은 작품인지, 좋지 않은 작품인지 판정할 수 있는 표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천재는 학자가 아니며, 천재의 산물은 학문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자는 자신의 학문적 생산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동류의 성과물을 얻도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천재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인식하고 있기보다는, 자연의 일부처럼 창조한다. 마치 과실나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경이로운 열매를 생산하듯 말이다. 따라서 천재라는 말은 예술의 영역에 국한해서 형성되었으며, 뛰어난 예술가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나) 서양 예술사 중에서도 르세상스 시기, 의심의 여지 없이 뛰어난 예술가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는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을 들 수 있다. 피테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라파엘로의 작품을 직접 보고 ‘라파엘로는 다른 사람들이 단지 희망으로 품고 있는 일들을 해냈다.’라며, 라파엘로를 격찬했다. 그러나 모든 예술적 문제를 전체와의 관계에서 균형감 있게 생각했던 피테는 예술적 업적에 대한 해석에서도 전승된 문화와 예술가의 노력을 간과하지 않는다. 피테는 라파엘로 같은 천재적인 화가도 신처럼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탁월한 선배와 스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헤겔 또한 예술가의 재능이 자연의 계기 즉 영감이라는 것을 간과하지는 않지만, 그는 영감보다는 사고의 형성과 훈련, 기술과 숙련을 중요시했다. 그는 ‘영감’이라는 혼돈된 개념을 논의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재능이 하나의 자연적 계기라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예술가도 작품을 제작할 때 사고의 형성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솜씨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에서 예술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을 지니기 때문인데, 이것은 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운율적인 것, 각운이 그런 것에 속한다. 여기서의 숙련에는 탁월한 영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을 평가한다. 작가가 보통의 감상자와 구별되는 점은 안목이 뛰어나다는 데 있다. 즉 작가는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본다. 이 안목을 베이컨은 ‘비판적 감각’ 또는 ‘비평’이라고 부른다. 작가는 이러한 비판적 감각이나 비평을 토대로 자신의 작품을 날카롭게 평가하면서 바라본다. 이런 관점에서 ㉠ 창작의 진정한 의미는 결과물이 어떤가가 아니라 창작 과정에 개입되는 작가의 평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아무렇게나 내놓지 않으며 반드시 엄정하게 평가한다. 니체가 말했듯이, 평가야말로 가치 창조다.

이러한 측면에서 렘브란트는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의도에 도달할 때 만족된다.’라고 했다. 미술사가 고프리치는 이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할 권리는 화가에게 있다.’라고 적절하게 해석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작품은 언제 완성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끝난 뒤, 작가가 작품에 서명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지 못하는 작가는 서명할 수 없으며, 자기만족에 도달하지 못하는 작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작품을 공식적으로 감상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자신의 작품에 서명할 수 없는 작가는 작가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림 1’을 그리는데 이용된 아이칸(AICAN)은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명령에 따라 그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15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예술가들의 예술 작품, 1,119명의 화가가 그린 8만 1,229개의 회화를 스타일별로 분류하고, 화가들과 화풍들을 학습하였다. 아이칸에는 학습한 작품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힘과 학습한 작품을 따랐을 때 벌칙을 가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이 상반된 두 힘은 생성된 예술이 새로우면서

도 동시에 용인할 수 있는 미적 기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 준다. 아이칸의 개발팀은 무작위로 만들어 낸 작품 중 수작을 선발하여, 인간 감상자에게 테스트하였다. 감상자들은 창작자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별하지 못했다.

‘그림 2’를 그리는 데 이용한 미드저니(Midjourney)는 아이칸과 유사한 양의 그림을 학습하였다. 그런데 미드저니는 사물이나 사람의 형태를 매우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중시한다. 엘런은 이러한 미드저니를 이용하여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주름 장식이 많은 프릴 드레스와 우주 헬멧을 쓴 여성의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명령어를 넣었고, 조명 및 색상 조화 조정이 가능한 프롬프트에 900번 이상의 수정을 가하여 최종 3개의 이미지로 이어지는 작품을 만들었다. 최종 선택된 그림을 생성한 후에는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정리한 후 고화질 해상도를 보정시킬 수 있는 기가픽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를 실행하고 인쇄소에서 출력해 캔버스에 이미지를 인쇄했다. 엘런은 이 그림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 출품하여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우승하였다.



<그림 1> 프레야(Freya)



<그림 2>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

# 연습지

※ 답안은 반드시 별도 부여된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본 연습지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시험 종료 후 회수됩니다.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lines and a large watermark reading 'K ARTS' in the center.